

2012년 한평공원 만들기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신한은행



사랑의열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12 한평공원

4가지 마을이야기

주민 사랑방, 공단 근로자의 작은 쉼터, 우리 동네 알림공원, 버려져 있는 막힌 공간에 한평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평공원 10년 되돌아보기

기존 한평공원 모니터링을 통하여 파손된 한평공원에 주민과 도시연대 회원, 신한은행 자원봉사단과 함께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안동 | 하안사랑방



시화공단 | 코포모 한평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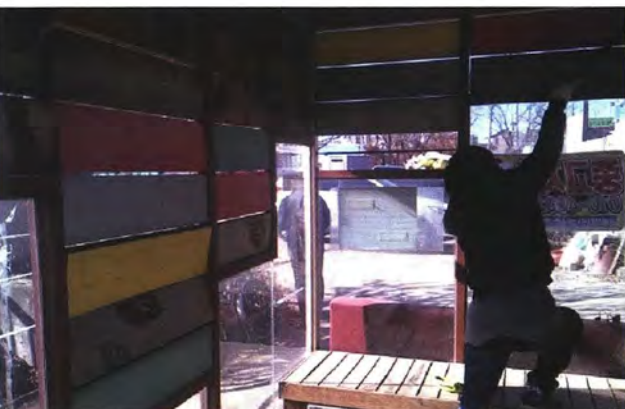
창신동 | 한땀 한땀 한평공원



체부동 | 빨간벽돌 한평공원



기존 한평공원 유지보수 활동



CONTENTS

제1부 | 한평공원을 소개합니다. 04

- 1. 지속가능한 한평공원을 꿈꾸다. 06
- 2. 한평공원의 역사 10

제2부 | 2012년 한평공원 12

- 1. 하안동 한평공원 | 하안사랑방 14
- 2. 정왕동 한평공원 | 코포모 한평공원 26
- 3. 창신동 한평공원 | 한땀한땀 한평공원 36
- 4. 체부동 한평공원 | 빨간벽돌 한평공원 48
- 5. 기존 한평공원 유지보수 활동 56

제3부 | 보태는 이야기 66

- 1. 참여소감 68
 - 문정석
 - 피예준
 - 배명수
- 2. 함께 만든 사람들 76



제1부

한평공원을 소개합니다.

지 속가능한 한평공 원을 꿈 꾸다

한평공원

한평공원 사업은 2002년부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방치된 마을의 자투리 공간을 주민과 협력하여 유의미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한평공원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지, 재래시장, 임대주택 아파트 등에 한평공원을 조성 해 온 것이 올해로 11년째입니다. 2012년도까지 총 45개의 한평공원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 한평공원 추진방향

한평공원 11년을 맞이하며 올해 추진하고자 하였던 한평공원의 방향은 ‘저변확대’와 ‘한평공원 운동 다양화’였습니다.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한평공원 1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평공원 11주년 기념행사는 심포지엄을 통해 그동안 한평공원으로 연계된 주민, 관계자, 디자이너 등의 참여자들과 더불어 한평공원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11년동안 조성한 한평공원을 되돌아보고 이 중 가장 의미 있는 한평공원에는 상을 주는 활동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실행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의 확보가 되지 않아 꿈으로만 그치게 되었습니다. 한평공원 만들기 사업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한평공원 12주년 기념행사가 내년에는 꼭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평공원 운동 다양화는 새롭게 조성되는 마을의 이슈를 한평공원을 통해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매년 한평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 왔습니다. 수색동 한평공원에서는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 고민했었고, 부평문화의 거리 한평공원에서는 점포상인과 노점상의 문제를 살피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다섯 곳의 한평공원을 조성하다보니 한평공원 조성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평공원에는 마을의 요구나 문제에 대해 반영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신동 한뫼한뫼 한평공원에서는 철거된 시민아파트 부지를 활용한 마을 알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시화공단 코포모 한평공원에서는 근무지도 삶터라는 개념으로 공단 근로자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한평공원이 10년을 넘어가는 지속사업으로서 앞으로 어떤 마을만들기 운동과 함께할 것인지 꾸준히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지·관리다

45개의 한평공원과 45개의 마을의 이야기를 만들어 온 한평공원이, 새로운 측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한평공원을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기존 한평공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시설이 많이 노후한 한평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한곳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7곳의 한평공원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한평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평공원 현황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도시연대 활동가를 비롯하여 몇 명의 인원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깊이 있게 모니터링이 진행되기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시설 측면에서의 노후도만을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용되면서의 각 한평공원의 이야기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세분화된 평가틀과 심층적인 주민 인터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의 전환

2012년 한평공원에서는 주민 조직에 대해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체부동 빨간벽돌 한평공원을 진행하며, 기존에 있는 주민 조직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주민을 인터뷰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한평공원 조성을 홍보하였고, 도시연대는 조력자의 입장에서 빨간벽돌 한평공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 방식이 기존보다 더욱 주민에게 주체성을 준 결과, 주민 스스로 성취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반면 많은 부분 진행상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마을을 생각하며 활동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깊이와 폭을 넓혀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평공원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과 디자인 자문, 예산집행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해 주민조직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딛고 더 새로운 한평공원을 위해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평공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장민경
도시연대 팀장

한 평공원의 역사

2002 | 제1호 빨래골 쉽터 |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2003 | 제2호 노틀담 어린이집 한평공원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제3호 금호동 한평공원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제4호 옥수동 한평공원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2004 | 제5호 인사동 한평공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제6호 미아동 한평공원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제7호 수색동 한평공원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2005 | 제8호 금화 한평공원 |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제9호 창동 한평공원 | 서울시 도봉구 창동
제10호 섬진강골목 한평공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2006 | 제11호 둔촌 한평공원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제12호 성서 한평공원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제13호 철산 한평공원 | 광명시 철산동
제14호 둥근언덕 한평공원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제15호 원종동 한평공원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16호 중계9단지1 한평공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2007 | 제17호 성산시영아파트 한평공원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제18호 부평문화의 거리 한평공원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제19호 부천 오정초교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20호 안산 석수골 한평공원 | 안산시 선부동
제21호 영월 한평공원 | 강원도 영월군

2008 | 제22호 우리쉼터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제23호 중계9단지2 한평공원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제24호 덕산초교 한평공원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제25호 한울타리 한평공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제26호 마을버스 정류장 한평공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2009 | 제27호 부평 문화의 거리 한평공원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제28호 나우리 한평공원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제29호 한우리 한평공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제30호 대장동 한평공원 |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제31호 새로세로 한평공원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010 | 제32호 방화동 한평공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제33호 까따기 한평공원 |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제34호 소소정 |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제35호 우림공원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제36호 삼육어린이 한평공원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2011 | 제37호 라온쉼터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제38호 푸른숲속공원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제39호 가린열쉼터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제40호 해든누리터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제41호 조각구름 한평공원 | 서울시 동안구 비산동

2012 | 제42호 하안사랑방 | 광명시 하안3동
제43호 코포모 한평공원 | 시흥시 정왕동
제44호 한땀 한땀 한평공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제45호 빨간벽돌 한평공원 | 서울시 종로구 체부동
기존 한평공원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외 6곳

제2부

2012년 한평공원

광명시 하안3동

하안사랑방



광명시 하안3동

하안 사랑방



위치 :
경기도 광명시 하안3동 하안주공
아파트 13단지 병아리공원 외곽



우리 동네에서 한평공원을 만들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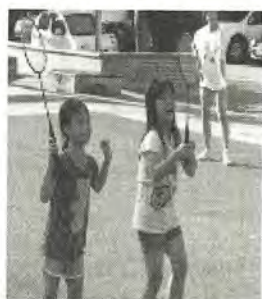
한평공원 조성 대상지를 공모하였을 때 가장 먼저 신청이 들어온 곳이 광명시 하안3동이였다. 2011년에도 한평공원 조성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미 신규 대상지 5곳이 정해진 상태여서 내년을 기약하자 하였던 곳이다. 광명시 하안3동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극적으로 한평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주장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안3동은 광명시 전체 인구의 7.1%에 해당하는 9,202세대 24,222명이 살고 있다.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997세대 1,528명으로 시 전체의 32.5%, 차상위계층 265세대 379명, 장애인 1,593명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하안13단지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아파트이다.

한평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대상지는 하안13단지 내에 위치한 병아리공원이다. 병아리공원에서는 주민들의 음주와 도박이 매일같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쓰레기투척 문제도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음주와 도박 등 일탈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문제의 공원들은 점차 주차장으로 변해갔고, 벤치가 하나 둘 없어지고 있었다. 어린이가 뛰어놀아야 할 어린이 공원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어른들의 일탈행위를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봐 염려스러운 곳이었으며, 아동성범죄나 유괴와 같은 제 2,3의 범죄가 잠재되어 있는 공원이었다.

지역주민의 꾸준한 움직임. 우리는 ‘아.사.모’입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민의 움직임이 있어왔다. 주민간담회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주민들과 하안13단지 관리사무소, 통친회가 모여서 공원 청소를 하고, 공원 내에서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자는 환경개선캠페인도 추진하였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아사모’가 생겼다. ‘아사모’는 고등학생에서 성인, 어르신들까지 총 25명의 하안13단지 주민과 통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원 내에 운동기구 대여와 청소, 문화공연 기획, 도서대여 활동을 해왔다.



▲ 운동기구 대여



▲ 운동기구 대여



▲ 장기, 바둑 대여

아사모에서는 운동기구 대여활동을 주5회 대여하고 있었으며, 어른과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기와 바둑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2011년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와 함께 병아리공원에서 음주, 도박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파고라를 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주민간담회



▲ 공원을 청소하는 주민



▲ 공원 내 금연, 금주 캠페인



▲ 아.사.모.

2011년 병아리공원 환경개선 당시 주민의견

- 아이들만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 누울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 벤치의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 통로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 뒷편에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벽화가 그려지면 좋겠다.



[개선 전] 개선 음주 도박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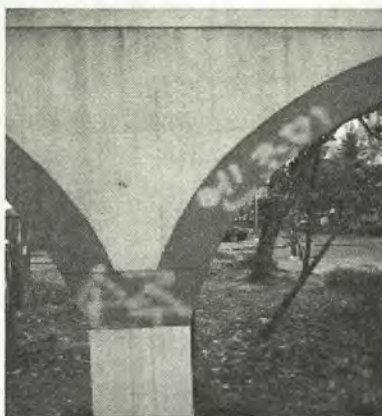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도 “문화사랑방”

2011년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아사모의 활동으로 병아리공원의 환경이 개선되었다. 파고라를 눕지 않고 앉을 수만 있게 바꾸고, 담장에 깨끗하게 벽화를 하고 나니 공원이 청결해졌다. 자연스럽게 공원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운동을 예전보다 자주하게 되었다. 병아리공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도박과 음주는 점차 줄어들었고, 마을을 건강하게 하는 ‘아사모’의 활동에 함께 뜻을 모아주는 기관(지구대, 관리사무소, 시 공원녹지과, 지역언론매체)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아사모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2012년에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였다. 병아리공원에서 파고라를 개선하고 나니 음주와 도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다시 음주와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에 물리적 개선만으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와 도박중독자들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방치료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더불어 주민들이 마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리더의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분기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었다.



[개선 후] 높지 않고 쉬는 장소



[개선 전] 더럽고 낙서된 아치벽



[개선 후] 병아리를 형상화 한 벽화

한평공원 조성요청이 온 것은 2012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도서 대여활동과 운동기구 대여활동을 할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독립공간이 생긴다면 기존에 복지관에서 빌려주던 운동기구를 공원 가까운 문화사랑방에서 자유롭게 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사랑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소통하는 것을 주민들은 기대하였다.



▲ 도서대여



▲ 금요 페이스페인팅

함께 만들어가기



▲ 주민공청회



▲ 한평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문화사랑방을 만들기 위해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원금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구입할 정도의 금액이었다. 컨테이너 하나 덩그러니 놓인다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복지관과 아사모에서는 문화사랑방이 매력적인 주민모임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타 단지의 문화사랑방을 견학하였다. 한빛놀이터나 와동작은도서관과 맹꽁이 책방의 사례를 보고 컨테이너 박스 안의 인테리어와 외부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한평공원은 서울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협력하여 더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단순히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주민들의 행동변화를 기다리기보다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여 컨테이너 박스 주변의 조경을 하기로 하였다.

문화사랑방 한평공원 주민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 꽃밭과 기본적인 의자 몇 개와 박스용 화단이 있어 계절에 맞게 꽃이 바뀌면 좋겠다.
- 가급적 벤치나 의자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설령 안쪽으로 의자나 벤치를 놓게 되면 전등이나 스마트폰 빛을 이용해 도박행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공원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음주와 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 미니연못, 산책로
- 급수시설 벽면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문화사랑방 디자인에 앞서 주민들에게 한평공원에 대해 알리는 사업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보았다. 음주와 도박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벤치를 적게 설치하기 바랐고, 짧게라도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와 계절에 따라 꽃과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식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안사랑방 한평 공원은 마을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주민조직인 ‘아사모’가 있다. 작년에 주민들이 경험한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 활동은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았다. 그러나 하안사랑방을 조성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 병아리공원 내 대상지

한평공원 조성 초기에는 병아리공원 내부의 오래되어 파손된 벤치를 중심으로 하안사랑방을 조성하고자 하였는데, 어린이공원 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는 것은 도시공원법상 위반되는 사항이라 설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병아리공원의 바로 앞 부근으로 이동 한 후 관리사무소와 재논의 하였으나 LH주택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컨테이너 박스는 구조물로 인식되어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 문화사랑방의 취지를 함께 동감하고 방법을 고안한 것이 기존에 있었던 방범초소 사이즈와 비슷한 컨테이너라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방범초소는 이용되지 않아 파손된 것이었는데 복지관과 ‘아사모’에서 수리하고 청소한 뒤 물품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요구나 복지관, ‘아사모’에서 꿈꿨던 문화사랑방 컨테이너 박스의 크기보다는 작아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설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설치심의 과정으로 인해 대상지가 변경되어 한평공원이 조성되었다.



▲ 변경된 대상지

망가진 방범초소



청소 및 수리



물품 보관소로 활용



디자인

하안사랑방 한평공원은 도시연대 회원참여를 통해 디자인되었다. 컨테이너 외부의 조경공간이 한평공원 조성 대상지이지만, 함께 이용할 컨테이너 박스 내부의 인테리어까지 디자인을 함께하였다. 주민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1차 디자인이 나왔다. 다양한 야생화과 가득한 식물체험 학습관,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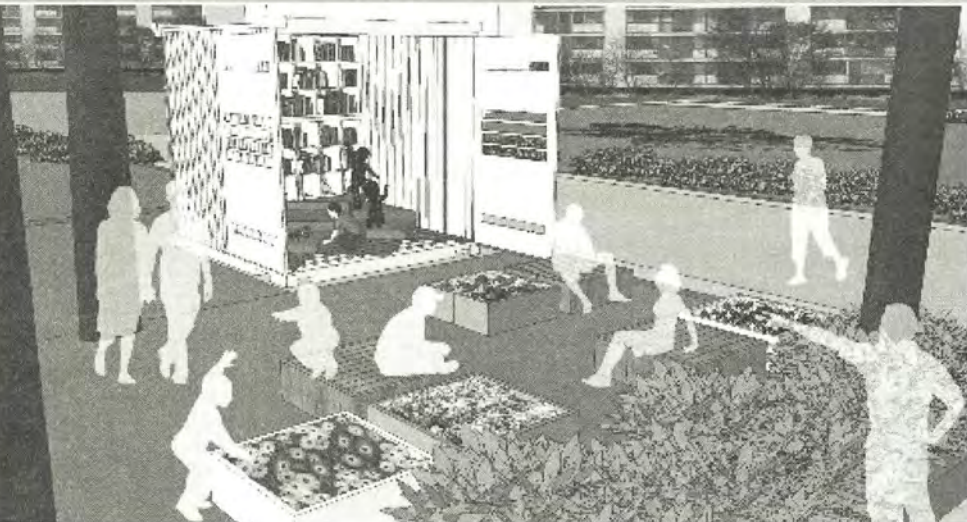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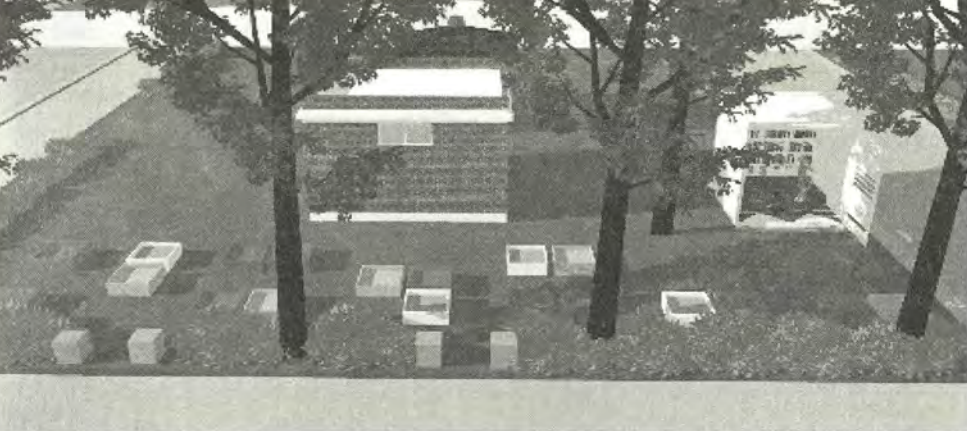
디자인 설명회 이후 주민의견으로는 전동차의 이동을 고려한 디자인과 산책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을 읽기에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어 2차 디자인으로 수정하였다.

회원참여 회의 ▶



디자인 회의 ▶





◀ 1차 디자인

▼ 2차 디자인

2012년 1월 1일 ~ 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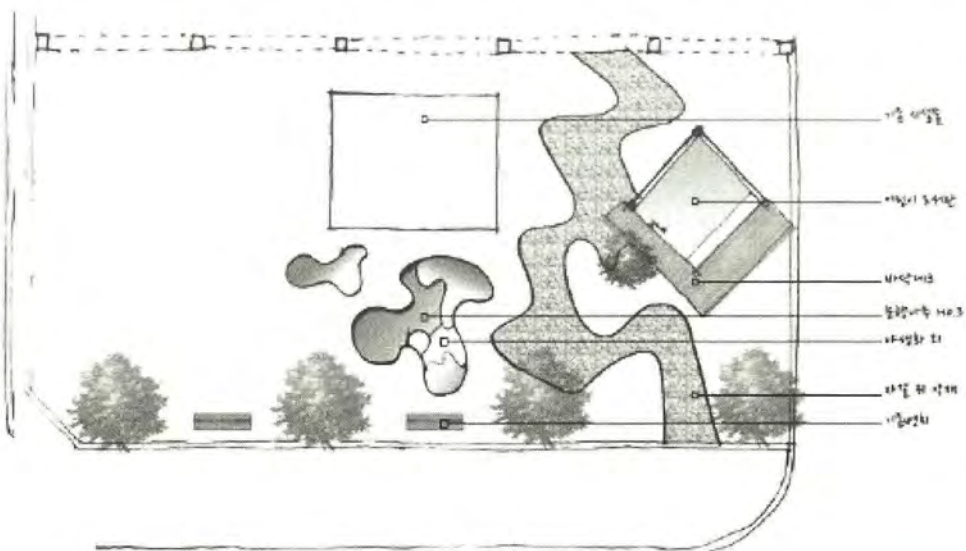
작물 위 식재



작물 위 식재



작물 위 식재



완공 및 개장식

디자인설명회에서 나온 급수시설 벽면의 벽화작업이 도시연대 회원과 하안동 주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진 벽에 각자 손바닥으로 색깔 도장을 찍어 나무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사모 주민들을 포함한 한평공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공원 조성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들의 노고를 남기고자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공원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로 손도장 아트월을 만드는 것이었다.

주민과 함께 벽화 손도장찍기 ▼



주민과 함께 만드는 벽화와 더불어 한평공원의 조경과 산책로 조성이 완성되었다. 음주나 도박을 하기 좋은 넓고 평평한 의자보다는 잠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작고 둥그런 의자를 설치하고, 계절마다 아름답게 피는 야생화를 산책로 주변으로 식재하였다.

11월 7일 하안사랑방 한평공원 개장식이 개최되었다. 사랑방에 비치될 책을 주민들에게 기증받고 우리 공원의 이름을 공모하였다.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여 한평공원의 개장을 축하해주었으며, 이 공간을 아끼며 이용할 것을 다짐하였다.

하안사랑방은 임대주택아파트의 음주, 도박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주민들의 결과물이다. 건전한 삶을 위해 운동기구를 대여하고 있던 방범초소를 문화사랑방으로 조성하여 기존 운동기구 보관소와 도서관으로 탈바꿈 하였다. 주민들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 새터민 등 모든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를 느꼈고, 이에 하안사랑방을 통해 상호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의 부재를 안타까워했던 주민의 마음이 하안사랑방 한평공원을 조성하게 한 것이다.

한 평 공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시작된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아사모의 마을활동을 올해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역에서 바라볼 때 의의가 있다고 본다. 외부공간의 변화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이나,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온다. 작년 병아리공원의 파고라를 변화시키며 겪었던 주민들의 변화가 올해 한평공원 조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또한 한평공원 조성으로 인해 더 큰 꿈을 꾸며 밝고 건강한 우리삶터를 가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해본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과 ‘아사모’에서는 하안사랑방으로 내년도 활동을 꿈꾸고 있다. 겨울철에는 추워서 이용할 수 없는 사랑방에 전기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이야기 중이다. 또 다양한 도서를 보유해서 독서문화를 보급함과 동시에 구연동화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한평공원에는 매년 계절별 야생화를 심어서 4계절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고, 운동기구 보관 장소의 역할도 지속할 계획이다. 하안사랑방 한평공원은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탄생되었다. 올해 만들어진 한평공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고 산책하는 생각의 공간, 담소를 나누는 소통의 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문화가 담기기를 기대해본다.



- ▲ 시공완료 모습
- ▲ 개장식에서 책 기증하는 주민
- ▲ 문화사랑방에서 책 읽은 아이

시흥시 정왕동

코포모 한평공원





시흥시 정왕동

코포모 한평공원

공단 근로자의 쉼터로, 한평공원

시화공업단지는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과밀을 막고, 수도권 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을 위해 조성되었다. 경기도 제조업의 대표지역으로 안산의 반월공단과 나란히 조성되었다. 시화공단은 시흥스마트허브라 불려지고 있으며 2004년에 조성되어 현재 9,541개의 업체가 입주하였다. 그 중 95%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있다. 시화공단은 세계금융위기로 온 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입주 업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인력은 부족하여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채용관리가 어렵고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시화공단의 생산인력 부족은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열악함에서 올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근로조건과 출·퇴근길의 열악함 및 근무지에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 생산인력 부족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코포모 한평공원은 시화공단에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코포모 테크노센터에 조성되었다. 코포모 테크노센터 아파트형 공장은 시화공단에서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이었지만,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 공간은 적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코포모 센터에 입점하고 있는 신한은행 시화중앙기업금융센터지점에서 공장 근로자를 위한 한평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대상지 답사 및 의견수렴



▲ 대상지 현황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10도 코포모
테크노센터 아파트형 공장 바로 앞 완충녹지

그 전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주거지 위주로 대상지가 선정되다 보니 시화공단에는 그동안 조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한은행 측의 지속적인 한평공원 조성 요청과 더불어 근무지도 생활환경이라는 생각으로 코포모 한평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코포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신한은행에서 몇 년에 걸쳐 한평공원을 신청한 이유가 있다. 설틈 없이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작은 벤치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햇빛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형 공장 옥상 주차장 한 칸이 전부였다. 1층 옥외 공간에서는 앉을 곳이 없어 서서 쉬거나, 도로 연석이나 현관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이 쉼터의 전부였다.

사람위주의 배려가 필요한 공단환경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간만의 차가 매우 큰 갯벌이었다. 이를 시화방조제 건설로 간척지로 바꾸고 공단이 조성된 것이다. 간척지여서 땅이 습기가 많고 지하로 깊게 건물을 팔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곽과 옥상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옥상공간에는 주차로 인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파고라 2곳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격자형으로 배치된 공장 외에는 도로 용지이며 차량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보도가 없는 구간이 많아 보행자의 배려가 조성계획 당시에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나무 그늘 아래에 녹지가 잘 자라고 있지 않아 법면의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척지로 토사에 염분이 많아 식재가 잘 자라기 쉽지 않고, 배수의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다.

완충녹지에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지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 않고, 지장물이 배치되어 있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건물 외부에서의 보행환경은 열악하였고, 조성된 완충녹지도 험벗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코포모 테크노센터 건물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벤치하나 놓여져 있지 않아 차량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불편해 보였다.



◀ 서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

시흥시 공원관리과 협의

한평공원이 조성될 곳은 지목이 도로이고 완충녹지이다. 이에 시흥시 공원관리과에서의 협의가 필요하였다. 쉼터로서 벤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와, 디자인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였다. 완충녹지 공간과 더불어 자전거도로이므로 기존 수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보행공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시설설치 여부확인과 디자인 협의 과정을 2차례 청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공문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시에서 공단에 대해 신경을 쓰기에는 부지가 너무 넓고 재정상의 여건이 되지 않는다. 공장 역시 입주한 뒤로는 공장 외부공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에 공장 외부공간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공간에 한평공원이 들어간 것은 공단도 하나의 삶터로서 가꾸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근무지도 하루 시간의 절반을 소비하는 삶의 터전으로 바라보고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신한은행의 요구로 시화공단에 한평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코포모 테크노센터 근로자의 쉼터 조성 욕구를 근로자들끼리 공유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시흥시 공원관리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관계부처에서도 공단 근무환경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코포모 한평공원이 단지 코포모 테크노센터 근로자들에게만 제공되는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화공단과 더 나아가 전국의 공단의 환경 개선에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공장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했다.
사업설명과 더불어 근무환경에 대해 입주한 공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들어보았다.
여가, 커뮤니티, 출퇴근 및 근무 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다.

1. 여가관련

Q1. 점심식사 후, 여가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게임을 한다. 잠을 잔다. 나와서 바람을 쐬다.
교대로 점심을 먹기에 쉴 시간이 없다.
서서 휴식을 취한다.

Q2. 여가활동을 한다면, 주로 어느 곳에서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집, 사무실에서 30분, 쉴 수 있을 때 틈틈이 쉰다. 사무실 안에서 앉아 차마신다.

Q3. 근무 중, 휴식의 형태와 횟수는?

6시 퇴근할 때도 있지만 한시간 쉬고 다시 7시부터 근무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기도 한다.
쉬는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틈틈이 쉬는거다.

3. 출퇴근 및 근무 형태관련

Q1. 아침에 출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대중교통(버스), 자가용, 자전거이용(집이 25분 거리이다.), 회사차 이용
공단과 변화가까지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버스가 너무 없고 배차간격이 20분 이상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한다.

Q2. 일상적인 근무형태는 어떠신가요?

앉아서 하기도 하고 서서 하기도 한다.

2. 커뮤니티

Q1.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및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해요.
남자가 더 많아요. 남녀성비는 남자가 6 여자가 4, 남자가 4 여자가 6

Q2. 아파트형 공장 안에서 타 업체 직원들간의 교류나 모임, 공동 활동 등이 있나요?

동아리 벽보가 붙여져 있는건 봤는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Q3. 출퇴근 및 근무 형태관련

6시 퇴근할 때도 있지만 한시간 쉬고 다시 7시부터 근무해서 새벽 1시에 퇴근하기도 한다.
쉬는 형태가 다양하지 않고,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틈틈이 쉬는거다.

4. 공간환경 및 기타

Q1.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환경적으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바쁘고 쉴 곳이 없어 힘들다. 한평공원 조성 대상지에 매일 나오는데 계속 서있어야 해서 힘들다. 한여름에는 옥외공간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나무 밑에 있기 힘들다. 앉아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

Q2. 아파트형 공장 안에서 타 업체 직원들간의 교류나 모임, 공동 활동 등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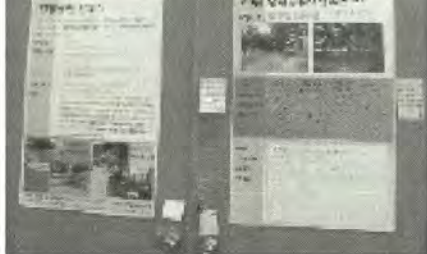
동아리 벽보가 붙여져 있는건 봤는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코포모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로자 인터뷰나 사업장 방문을 하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연령대가 젊다는 것이었다. 여자 근로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아파트형 공장 안에 딱 2곳 있는 식당에서의 점심시간뿐이었다. 근무시간에는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밥을 먹는 터라 길게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다. 출근하면 여유 없이 근무하다 퇴근하는 것이 공단 근로자의 일상이었다. 휴식공간은 옥상 주차장 한 쪽에 파고라, 2층 복도의 벤치, 1층 편의점 옆 중정에서의 벤치였다. 점심시간에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편의점 옆 중정 벤치에서 종종 쉬는 사람들을 봤으나 이용도는 높지 않았다. 특히 여름에는 건물의 실외기가 중정에 설치되어 있어 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한다. 옥상 파고라는 1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올라가 쉬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시간상으로 여유롭지 않아 잘 이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시 건물 밖 현관에 앉아 담배를 피며 쉬거나, 잠시 완충녹지에서 산책하곤 하였다.

의견수렴

아파트형 공장 안에 모여 있는 공장들이지만 상호 교류가 없었다. 한평공원 조성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모임을 소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짧은 시간동안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식당 앞에서 판넬을 설치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좋아하는 공간이나 디자인에 붙이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업설명회 1회, 디자인 설명회 2회를 거쳐 근로자 의견을 도출해 내었다.

당연하게도 가장 많이 요구되는 한평공원의 성격은 쉼터였다. 벤치가 놓여지고 꽃과 나무가 있어 쉬기에 좋은 공간이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쉼터가 조성되더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 때문에 쉬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넓은 공단에 도로마다 설치되어있는 완충녹지이기에 시에서 방역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한평공원 조성 관련하여 시흥시와 협의할 때 이런 공단 근로자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한평공원 디자인상에서 벤치에 차양을 설치하여 벌레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용 측면에서는 흡연공원이 될 우려가 있으니 금연벤치가 표시되고 재떨이 설치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평공원 소개 및 의견조사

근로자 의견수렴 결과

디자인 요소 근로자 의견

- 벤치**
 - 벤치 앉는 곳에 남녀 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 벤치가 너무 길다.
 - 짧은 벤치를 다수 설치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한다.
 - 벤치의 통마루는 물이 고이고 청소하기 힘들다.
- 차양**
 - 차양설치가 안되면 장미 냉쿨이라도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 그늘막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 흡연관련**
 - 금연벤치가 표시되었으면 좋겠다.
 -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의 구분)
 - 재떨이가 있어야 한곳에 버리므로, 재떨이를 만들어 달라.
- 바닥 및 배수**
 - 배수환경이 열악하여 비가 오면 공원이용이 힘들다.
 - 바닥에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게 막았으면 좋겠다.
- 알림판**
 - 시, 그림, 사진 등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시켰으면 한다.
 - 시정, 고시, 공고 등 공공정보를 게시했으면 좋겠다.
- 기타**
 - 허리를 돌리는 원반이 설치되면 좋겠다.
 - 벌레가 너무 많아서 쉬기 힘들다.



디자인 설명회

디자인

공단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쉴 수 있도록 기다란 벤치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디자인의 주안점이었다. “대청마루”라는 개념으로 넓고 기다란 벤치가 설치되어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다리를 뻗고 앉아있거나 허리를 펴며 누울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노숙자가 점유할 우려와 일탈행위의 위험이 생길 위험이 있는 디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1차 디자인 설명회에서 근로자들은 오히려 독립적인 공간이 되도록 벤치를 떨어뜨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벤치가 따로 떨어져 있기를 바라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을 수 있기를 바랐다. 이에 벤치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도록 6개의 벤치를 디자인 하였다.

차양 디자인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우천 시의 휴식이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를 막을 수 있도록 차양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하늘과 녹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차양 없이 디자인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한쪽은 차양이 설치되고 한쪽은 벤치만 조성되는 절충안으로 최종디자인이 나왔다.



1차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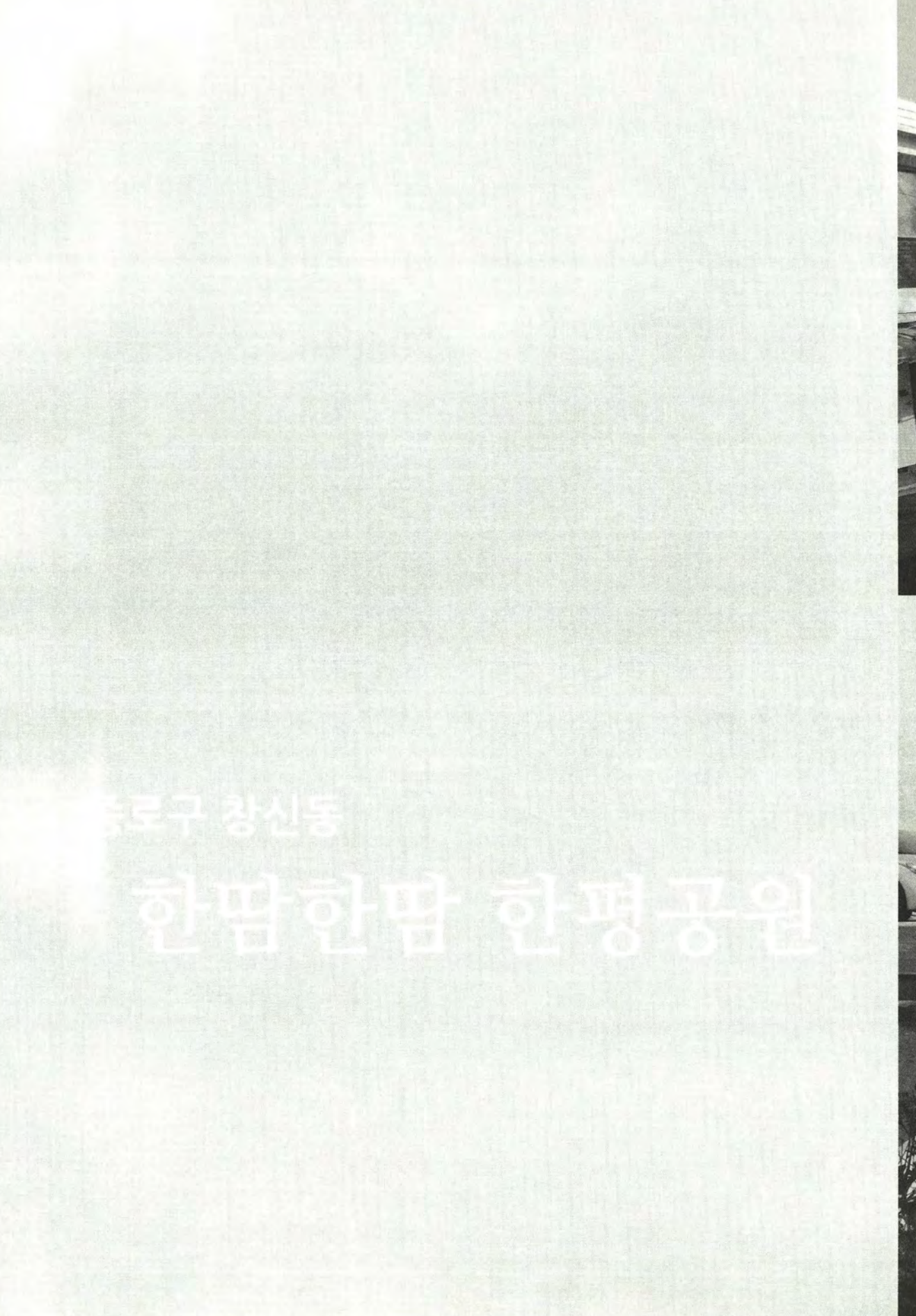


최종 디자인



완공 및 개장식

이렇게 코포모 한평공원 만들어졌다.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은 공단의 옥외공간에 벤치 6개가 설치되었다. 코포모 테크노센터 공장에만 190여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있고 1,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000명의 근로자에게 6개의 벤치는 아주 작은 공간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코포모 한평공원을 시작으로 공단의 근무환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성되었다. 잠을 자는 집만이 생활공간이 아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해질녘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일터도 우리의 생활공간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요구들과 노력이 일어났으면 한다.



동로구 창신동

한땀한땀 한평공원



종로구 창신동

한 땀한 땀 한평공원

버려진 공간에서 마을을 읽다.

종로구 창신동에는 올해 초부터 도시연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공간이다. 도시연대가 속해있는 종로구이면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를 통한 동네숲 가꾸기’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이었다. 작년 겨울과 올해 초 창신동에서 주민을 만나며 의견을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한평공원 조성하고자하는 곳이 많았었다. 그 중 유력했던 곳이 창신동과 이화동 사이의 성곽 인근 텃밭과 철거된 시민아파트 부지의 자투리 땅이었다.

창신동은 동대문 패션타운과 연계된 배후산업지이다. 동대문과 연계된 봉제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특한 삶의 문화와 물리적 현황을 보인다. 간판은 정육점이지만 봉제공장이 입점해 있거나, 일반 주거지이지만 1층에는 봉제공장이 들어선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원단을 실은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통행하는 통에 보행하기에 위험한 곳이 있기도 하다. 창신동 봉제공장 근로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있다. 봉제공장의 장기간 노동시간으로 바쁜 부모를 둔 창신동 아이들은 방치되어 일탈행위를 하는 것이 마을의 문제였다.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을 곳곳에서는 음주, 도박 행위를 하는 어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마을사람들도 창신동에 대한 애착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음주와 도박을 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어떻게 하면 창신동 주민들이 음주, 도박을 하지 않고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한평공원을 진행하며 창신동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 애착심을 갖게 하고 힘든 노동으로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오는 부모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었다. 그리고 봉제공장 근로자들도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평공원 조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창신동 한평공원 대상지로 첫 번째 지역은 많은 할머니들의 전폭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성곽과 인접해 있어 쉽게 추진할 수 없었다. 성곽에 면하여 형질변경할 시에는 복잡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두 번째 지역으로 한평공원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 대상지는 낙산시민아파트가 철거된 뒤 조성된 공용주차장 한켠에 버려진 땅이었다. 철거된 시민아파트의 석축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버려진 평상과 정신없이 자란 잡초들이 무성했다. 철거된 시민아파트 부지이며 모두가 지나다니는 길가에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창신동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지붕 없는 마을 박물관, 마을 알림 터를 만들어 창신동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대해 알고 애착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였다.



대상지 위치도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23-346



대상지 2 옛 시민아파트 부지



대상지 1 성곽인근 뒷밭

창신동 알아가기

창신동 알림터 한평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을을 알아가는 것이었다. 창신동 한평공원은 회원참여로 이루어져 7명의 도시연대 회원이 참여하였다. 디자인 작업과 더불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함께 모여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창신동의 장점, 단점 등을 분석해보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다소 거칠고 더 면밀히 분석해 될 부분들이 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고 한평공원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마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더불어 창신동에서 마을을 고민하고 방치되는 아이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창신동이 되고자 노력하는 지역 네트워크 창신마을넷 회의에 몇 차례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창신마을넷이 주로 활동하는 창신2동과 한평공원 대상지가 거리가 있어 면밀히 협력하기 어려웠지만, 창신동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디자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SO : 장점을 기회로

- 주거지의 특이함(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 드라마 촬영지
- ダイナミック한 지형과 좋은 전망
- 성곽 등 역사적인 장소
- 풍부한 마을이미지
- 봉제공장을 고려한 디자인
- 많은 공원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곳으로
- 봉제산업을 홍보
- 창신동 삶과 역사를 담은 안내판
- 마을 공동지도 만들기
- 마을 랜드마크 만들기
- 맑은 공원으로 조성
-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 공간

WO : 기회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 많은 오토바이, 채석장, 가파른 길,
오래된 주거환경을 Story telling으로 만들기
- 채석장 시민아파트 등의 쓰린 기억을 활용
- 봉제공장의 바쁜 작업을 보여주자
-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해 알고 애착심을
고취시키기
- 청소년들 봉제공장 견학 프로그램 진행
- 공원이 많은 것을 활용하여 공원마다
특색부여
- 골목길 보행지도 만들기
- 봉제공장 지도 만들기
- 단열이 안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뭇 쓰는 천을
활용하여 차양 만들기

ST : 장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

- 창신동 봉제공장의 브랜드화
- 지역 화폐, 포인트 카드 등으로 골목길 상권 활성화 및 확대 유도
- 의상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
- 우범지역화 되는 공원 디자인을 재설정(조명 보충, 디자인적인 벤치)

WT : 위협과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 대행 (택배 대신 받고 전달해주기 등)
- 마을 구성원들의 장점 list 만들기
- 이름 없는 작은 골목에도 이름 달아주기



▲ 마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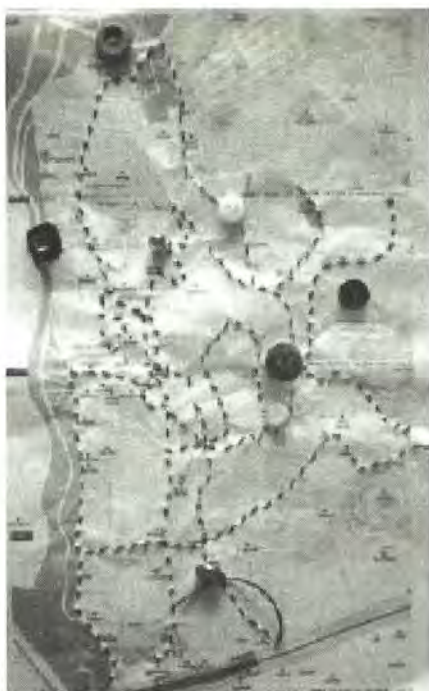


▲ 워크숍 결과물

앞선 창신동 마을에 대한 워크숍과 더불어 창신마을넷에서의 회의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한평공원에 마을의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 결과 마을 알럼터를 조성하여 창신동의 장점을 알리는 공간을 만들자는 결론이 나왔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중 가장 큰 개념은 창신동의 부모세대의 삶을 담고 있고, 물리적인 공간과 생활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봉제공장을 알리는 것이었다. 디자인 개념도 바늘땀 모양으로 적용되었고 공원의 성격도 봉제공장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봉제공장에 근무하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봉제마을지도를 게시판에 걸어 놓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와 더불어 창신동에 살았던 주민의 기억을 담을 수 있는 사진 기록 게시판을 만들고 창신동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주목할만한 인물을 알리고자 하였다. 창신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창신동 토박이의 30~40년 전 옛 사진과 현재 창신동을 사랑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블로거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창신동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년 아이들과 진행하고 있는 마을에세이 '찰칵'의 작품 중에서 골목길에 대한 사진과 글도 게시판에 수록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평공원 대상지에 있었던 낙산시민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알리고, 이런 버려진 공간이 재탄생 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 알림터 디자인 아이디어



▲ 봉제지도 디자인 아이디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

창신동은 낮에 주민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로당이나 마을 공원에서 항상 뵈 수 있지만, 아이들이나 부모세대들을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순환 설명회이다. 통장님과 같이 마을 어귀에서 주민들을 찾아가며 만나왔다. 사업설명회와 디자인설명회를 한평공원 인근 마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봉제공장에도 직접 찾아가 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했다. 공원의 디자인의 심미적인 면보다는 활용측면과 유지관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미 공원이 많은데 그곳이 일탈행위가 행해지는 곳이 되고 있다는 것. 음주와 도박의 장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래서 벤치가 설치되는 것보다는 꽃과 나무가 있기를 바랐고, 바닥에 앉기 불편한 재료로 포장되기를 원했다. 시민아파트 잔재로 남아있는 석축이 너무 흉물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정해져 있는 예산의 한계로 석축을 없앨 수는 없었으며, 시민아파트를 추억할 수 있는 옛 모습이므로 기존의 석축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날 한평공원 조성 예정지에 텃밭이 생겼다. 디자인이 거의 다 나와서 시공을 앞둔 시기에, 주민이 만든 텃밭으로 인해 시공을 할 수가 없었다. 주민이 버려진 공간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반가움과 함께 시공 일정이 배추 수확 이후 들어가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평공원을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창신동 한평공원에서도 갑자기 생긴 텃밭으로 인해 조성일정과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다. 버려진 공간에 주체적으로 가꾸고 활동하는 주민이 나타났다는 것이 소중하여, 기존 디자인에서 텃밭을 추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텃밭을 관리하는 주민에게 한평공원의 취지에 대해 더욱 열심히 소개하고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텃밭을 관리하는 주민이 자신이 가꾸는 텃밭과 더불어 한평공원의 유지 관리에도 신경쓰겠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

봉제공장 근로자들이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스스로가 마을에 대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봉제마을지도였다. 봉제공장 근로자들이 직접 만드는 우리 마을 지도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공장, 우리 마을에서 사랑할 만한 곳을 단추를 달고 원단을 꿰매 표현하는 것이다.

더불어 창신동 아이들이 우리 마을을 직접 꾸미고 이것을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은행나무 어린이집과 함께 타일벽화 그리기를 추진하였다. 아이들이 타일에 각자 우리 마을에 대해 그리고 싶은걸 자유주제로 그린 것을 시민아파트의 흉물스러운 석축에 붙여 꾸몄다. 어렸을 적 작품이 우리 마을 어딘가에 남아있고 자신의 작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이 없는 창신동 부모들과 아이가 함께 산책하며 돌아볼 공간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품 앞에서 아이들이 사진 찍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창신동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고서를 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확인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으러 가곤 한다고 한다.

봉제 마을지도 만들기

내가 사는 집, 우리 공장, 창신동 자랑거리에
단추를 달고, 원단을 붙여 마을지도를 만든다.



타일벽화로 우리동네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마을을 그려 공원에
붙인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만든 그림과
공원을 보러간다.

디자인

창신동 마을알림터 한평공원을 만드는 디자인이 쉽지 않았다.
수치지도상에도 나오지 않는 공간이어서 실측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비정형적이고 단차도 심해 실측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민의견으로
음주와 도박을 하지 않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벤치를 설치하지
않고 게시판과 조경 위주로 디자인하였다.

그러나 1차 디자인에서 일부 조성되는 나무 데크에 분명히 누군가 앉아서 술을 먹을 것이라는 주민의견으로 데크마저 없애고 바닥은 쉽게 앉을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사토 포장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차 디자인에는 생각지 못했던 시민아파트 석축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아이들의 타일을 붙이는 것을 고안하였고, 주민이 직접 가꿀 수 있도록 텃밭을 디자인 하였다. 텃밭은 한평공원을 추진하는 도중 어느 날, 배추를 심은 할아버지 두 분이 있었다. 주민이 가꾸고 있는 텃밭을 없애고 한평공원을 만들 수 없기에 시공시기도 배추 수확 이후로 하게 되어 12월에야 시공이 들어갔다. 더불어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 할아버지 두 분은 텃밭을 일굴 수 있게 해준다면 한평공원 전체를 매일같이 관리해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버려져 있는 땅이었던 이곳이 어느 순간부터 동네 할아버지의 소일거리로 텃밭이 조성된 것이다. 이런 주민의 움직임에 무시하고 한평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판단으로 일부 구간을 텃밭으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 1차 디자인



▲ 최종 디자인

창신동 알림터가 생겼습니다.

창신동 한뫼한뫼 한평공원이 만들어졌다. 삶에 바쁜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는 동네 알림터가 생겼다. 매력적인 창신동을 찾는 외부인이 그저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라는 어찌면 우리 삶의 슬픈 흔적일 수 있는 공간이 마을 역사를 담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예전 시민아파트에 살았다고 한 주민이 있다. 아파트가 철거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창신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뫼한뫼 한평공원을 보면서 예전 삶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창신동은 자랑거리가 많은 동네이다. 박수근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곳이었고, 전태일 열사가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뜨겁게 사랑했던 지역이다. 올해 개봉되었던 영화 건축학개론이나 수많은 드라마(프라하의 연인, 패션왕, 청담동 앨리스 등)에 배경으로 나오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정순왕후의 애달픈 러브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공간이면서, 일제 강점기때 채석장으로 활용된 안타까운 지역이기도 하다. 봉제공장이라는 독특한 삶의 문화와 지금은 보기 힘든 예전 주거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다. 창신동의 매력을 주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나의 삶터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창신동 알림터가 우리 마을을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는 시작이 되기를....



한평공일



종로구 체부동

빨간 벽돌 한평공원



▲ 한평공원 조성 전

-체부동 주민 김한울-



대상지 소개

종로구 체부동 일대는 도성대지도 등 조선시대의 도성지도에 표시된 골목길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오래된 골목길이 많은 동네이다. 폭이 일정하지 않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개량한옥들은 집 둘레로 빨간 벽돌을 쌓아 올려 빨간벽돌과 한옥 처마선이 함께 어우러지는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010년 4월, 서울시의 한옥보존 정책에 따라 체부동 일대가 보존지구에 포함되면서 낮은 처마가 이어진 골목은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손보아지지 않은 집들이나 방치된 골목 구석구석은 오래된 동네의 푸근한 분위기를 만끽하기에는 어딘가 손길이 필요해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동네를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가꾸며 살자는 데에 주민의 뜻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사직동 새마을문고 총무인 한철구님에 의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체부동 한평공원은 그 이전에 ‘프로젝트 共장’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934년에 지어진 체부동 성결교회 건물의 부속건물인 한옥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마을 북카페로 조성하는 계획에 있어서는 교회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작업이 있었다. 한편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주민들과는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가꾸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척을 보이면서 주민과 행정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마을만들기'가 붐을 이루면서 각 동네를 돌며 마을만들기 특강이 이어졌는데, 이때에 도시연대의 김은희 사무처장이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특강을 진행하며 만남이 이루어졌다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살펴 본 후 한평공원 조성에 적지임에 모두 의견을 같이 했고, 행정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체부동 한평공원 조성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조성 배경

체부동 한평공원 대상지는 본래 주변의 한옥을 이어주던 골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주변의 한옥 중 한 채를 제외한 모두가 필로티 주차장을 갖춘 빌라 건물이 신축되면서 집과 집을 이어주는 길의 기능을 상실한 채 아무도 걷지 않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렸다.

인적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는 쓰레기 투척과 노숙인 유입 등 동네 주민들에게 반갑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막다른 길의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고 쓰레기 투척 금지 경고문 판넬을 부착한 채 낡은 보도블럭 사이로 풀만 무성하게 자라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마침 대상지는 체부동 북카페 조성 예정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폐쇄된 골목 바로 옆 집의 할머니는 버려진 길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지는 쓰레기에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이던 차였다. 구청의 협조 약속을 받은 후, 주민 대상의 설문 작업이 진행되었다.

주민 의견

개별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평공원 대상지는 잊혀진 공간이었다. 대상지 앞을 자주 지나다니기는 하지만 대상지의 쓰임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해보지 못한 것이다. 가뜩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자주 눈에 띄는 것이 못마땅한 주민들은 한평공원으로 인해 걱정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면접조사 결과 여성 노인분들의 쉼터가 부족하다는 데에 목소리가 모였다. 노인정이 멀고 가는 길이 가파른 까닭에 노인정 이용빈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대신 골목 귀퉁이나 개인집을 이용하여 서로 오가며 마실 삼는 여성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는 남녀노소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평공원 대상지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붕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 결국 한평공원 대상지 인근에 놀이공간이 부족한 아동들까지 감안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쉬며 만나고 대화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으로 디자인 방향이 잡혔다.

대상지에 남은 한옥의 빨간 벽돌담이 남아있어도 골목 전체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것을 감안하여 빨간벽돌담을 감상할 수 있도록 담벽을 그대로 노출시키기로 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선이 개방될 수 있도록 빌라 쪽에서 필로티를 거쳐 공원 내부에 시선이 모두 닿을 수 있는 의자를 채택했다.



▲ 주민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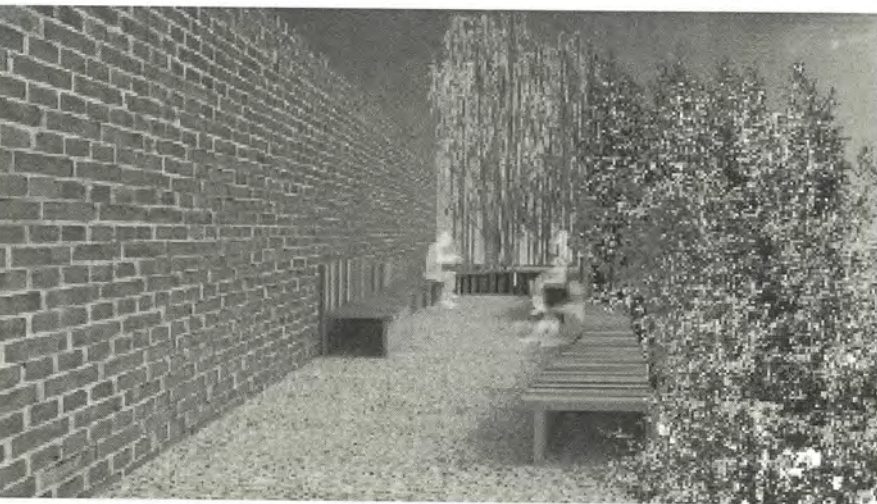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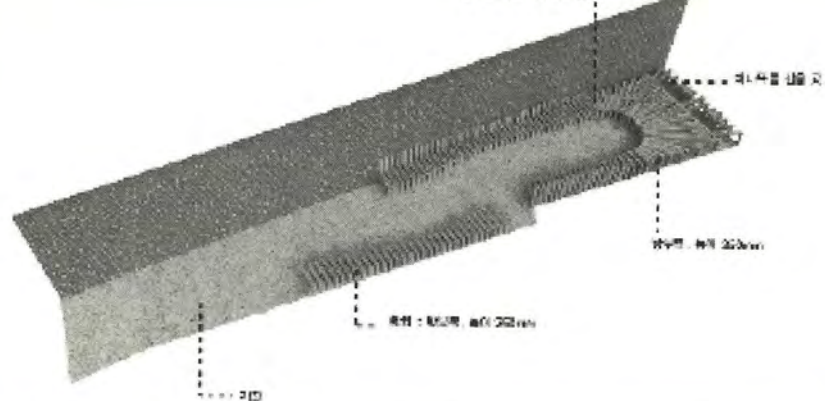


▲ 디자인 설명회

디자인 및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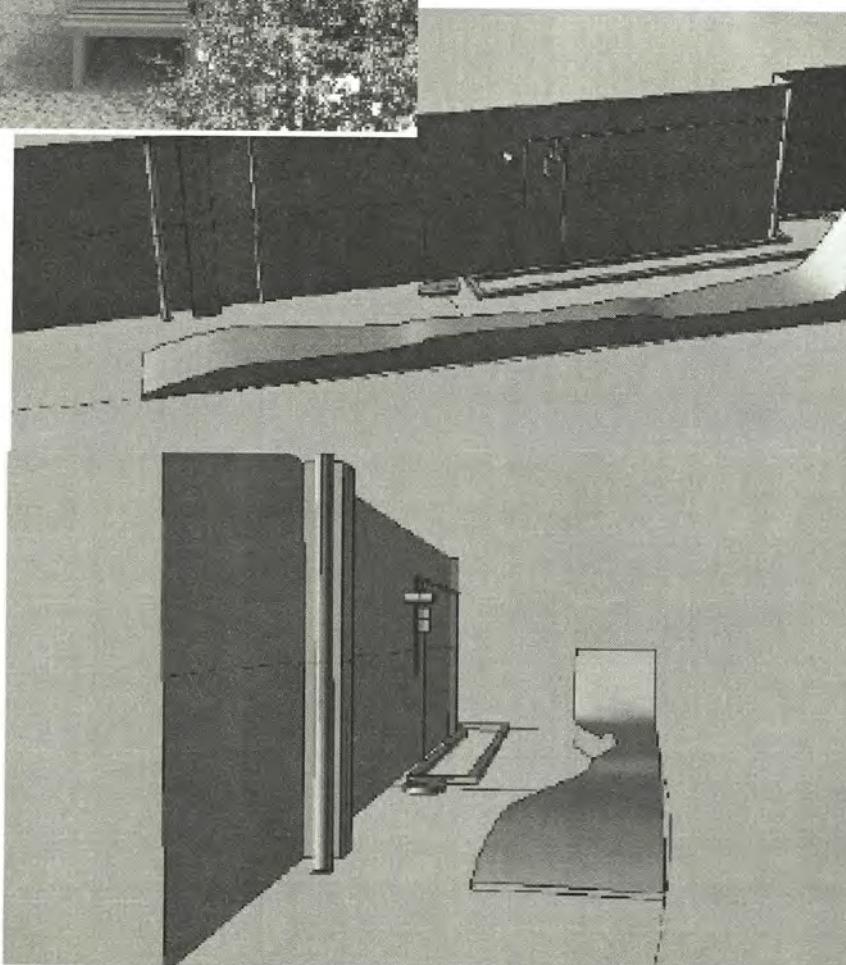
동네에 건축사무소나 건축가가 많은 탓에 동네에 있는 건축가들이 모임을 한 바 있다고 하여, 모임에 참석했던 건축가 중 관심있는 분을 섭외하여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 유선형의 목재 벤치를 디자인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공간 활용 등을 고려하여 막다른 골목을 두르고 있던 일부 벤치를 삭제하고 화단으로 꾸미는 것으로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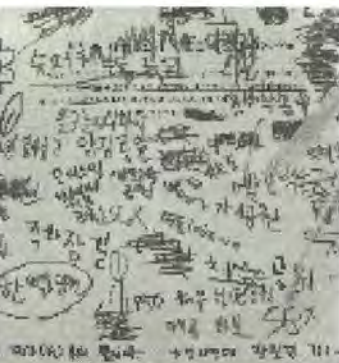
현장을 뒤덮고 있던 나무와 덩굴, 잡초 등을 제거하고 쌓여있던 각종 쓰레기를 실어 날랐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촌주거공간연구회 회원들과 지인들이 모여 설치된 벤치 외의 데크 설치작업과 화단 조성 작업 등도 직접 진행했다.



▲ 1차 디자인

▼ 2차 디자인





체부동 한평공원 이름 공모

체부동 한평공원이 처음 추진되기 시작하던 때에 일찌감치 현장을 가로막고 있던 펜스에 판넬을 설치해 두었다. 한평공원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평소에 현장을 지나는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한평공원의 취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한평공원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평공원의 이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판넬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체부동의 오래된 골목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 등 여러가지 의견 가운데에 한평공원 대상지와 그 주변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빨간벽돌의 인상이 크게 작용하여 ‘빨간벽돌’이 포함된 이름의 의견이 많이 적혔다.

그렇게 체부동 한평공원은 ‘체부동 빨간벽돌 한평공원’으로 이름이 결정되고 개장식을 맞았다.



개장식

개장식은 일요일에 열렸다. 교회 바로 앞의 막다른 골목을 늘 두고 보았던 체부동 성결교회 신자 여러분들과 골목 곳곳의 길가나 화단 턱에 모여앉아 이야기나누시던 여성 노인분들도 참여하여 조출한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동네 방앗간에서 가져 온 따끈한 시루떡을 나누어 먹었다.

한평공원 조성 과정에는 걱정스런 눈빛을 감추지 못하던 분들도, 말끔히 정리된 채 활짝 열려진 한평공원을 보시고는 얼굴에 화사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 동안 풀만 무성한 채 어둡게 방치되던 공간이 어느새 흙바닥에 파릇하게 돋아난 여린 싹처럼 체부동 빨간벽돌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는 활력소 처럼 등장한 것이다.



▲ 완공된 빨간벽돌 한평공원

아직 주민들 사이에서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한평공원에서 채워질 이야기와 웃음으로 어느새 눈 녹 듯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개장식에 함께 나눈 떡과 음식, 그리고 체부동 빨간벽돌 한평공원 조성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들 사이의 새로운 대화와 만남의 가능성들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기존 한평공원 유지보수 활동

한평공원 모니터링

한평공원이 2002년부터 조성되어 기존에 조성된 한평공원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한평공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1개의 한평공원을 다 돈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 2010년 이전에 조성된 한평공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래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조성된 31개의 한평공원을 모니터링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모니터링을 위해 투입된 사무국 직원과 회원 몇 명으로는 인력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각 한평공원을 돌며 체크할 수 있는 사항도 시설의 노후도 확인 측면에서 그치는 한계를 보인다. 아래 표는 한평공원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로, 작년과 올해 진행하였다.

구 분		평 가				
유 · 무 여부따라		유		무		
현관	현관 지체					
	신한은행 로고					
관리자						
시설평가		매우 좋다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관리상태						
접근성						
이용도						
노후도						
변화정도						
사진촬영						
사진촬영	현관사진					
	노후정도를 알 수 있는 사진					
	이용정도를 알 수 있는 사진					
	공원 입구					
	한평공원 조성당시와 다른 사항					

모니터링 평가 틀

작년에는 시설 점검과 현판 유무에 집중하여 모니터링을 하였다. 모니터링 2년차인 올해는 관계기관 인터뷰나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이용상의 문제들을 알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확실한 복지관과 연계된 한평공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의견을 듣기 어려웠다. 이는 한평공원이 조성된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임대주택아파트 안에 조성된 한평공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잘 관리하는 곳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성산시영아파트이다. 성산시영아파트는 2007년에 조성된 한평공원으로 나무벤치와 무대가 조성되었다. 무대의 나무 부조가 떨어져 나간 곳이 있었고, 나무벤치의 나무가 하나 없어져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나무벤치에 나무가 없어진 뒤 뽕죽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긁어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한평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을 때 관리사무소의 대답이 충격적이었다.

“우리의 한평공원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리하면서 신경 쓰고 있으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한평공원을 조성하면서 조성 이후의 사용이나 유지관리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성산시영아파트 한평공원이 아닐까 한다. 한평공원 조성 이후에는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관리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치되어 파손되는 한평공원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조성 성산시영아파트 한평공원]



나무부조가 떨어져나감



주민이용도가 높은 성산시영 한평공원



벤치에 나무가 빠진 뒤 뾰족한 모서리를
주민이 사포로 동글게 만들어 놓았다.

[2007년 부천 꿈바라기 한평공원]



성산시영아파트 한평공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우수 관리사례 한평공원은 부천 꿈바라기 한평공원이다. 작년 모니터링 당시에는 한평공원 나무 구조물들이 떨어져 바닥에 놓여있었다. 그래서 조금은 황량한 느낌이 들었던 곳이다. 올해 모니터링 갔을 때 작년과 다르게 산뜻한 느낌으로 재탄생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 새롭게 벽화를 그리고, 부조를 붙여 놓았다. 벽화를 그리면서 기존 한평공원의 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며 수리한 흔적이 보였다. 기존 현판에다가 나무를 덧대어 더욱 튼튼하고 멋있게 변화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도 매년 바뀌고 있었다.

한평공원의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예 없어진 한평공원도 있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지역, 관리가 잘 되고있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생각보다 이용도가 더 높아져서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는 곳이 있었고, 조성 전의 이용 상태로 되돌아간 곳도 있었다. 이러한 한평공원의 이용 상태와 관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올해는 이런 한평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원동력에 대한 분석보다는 실제로 어떤 한평공원에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에는 모니터링 이후 심하게 파손된 곳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였다. 신규 한평공원을 만드는 작업이 다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리모델링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지역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심각할 정도로 파손된 한평공원이 없었으며 오히려 조금 손을 보게 된다면 다시 이용하기에 좋을 한평공원이 많았다.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것 같은 한평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몇 년 전 주민과 함께 고민하여 만든 한평공원을 존중하며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리모델링이 아닌 유지보수 시공을 여러 곳으로 나눠 하기로 결정하였다.

유지관리가 필요한 한평공원 유형

유지관리가 필요한 한평공원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

1. 조경

한평공원 시설에 대한 파손은 많지 않으나, 주변 식재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잡초가 자란 경우이다. 부천 밝은자리 한평공원의 경우 학교 앞 삼거리의 자투리땅에 게시판과 조경을 한 곳이었다. 2006년에 조성된 한평공원으로 나무 게시판은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무성한 나무들로 인해 게시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서 보였다.

같은 해에 조성된 성서 한평공원도 마찬가지로 잡초로 인해 시설이 노후해 보였다. 벤치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파손된 곳이 없었으나, 주변 조경된 공간에 잡초가 무성하였다. 부천 밝은자리 한평공원과 마찬가지로 정리가 안되어있는 식재 사이사이로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더불어 나무 벤치에는 곳곳에 잡초가 자라나 있어 깔끔해 보이지 않았다.



부천 밝은자리 한평공원



성서 한평공원



신내동 둥근언덕 한평공원의 나무 부식

2. 구조물 보수

유지관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이다. 구조물은 2006년에 조성된 둥근언덕 한평공원의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과 무대가 설치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가 썩거나 형질이 변형되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나무 계단이 위험하게 뒤틀려 튀어나와 있었다.

이러한 구조물의 파손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목구조로 만들어진 구조물에 정기적인 관리가 없어 부식되었다는 것이었다.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나무는 부식되게 되어있고 그러다보면 나무의 장력에 의해 구조물을 고정하였던 피스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부식된 신내동 둥근언덕 한평공원의 나무계단과 무대를 다시 보수하기로 결정하였고, 보수를 위해 시설물을 분해해 본 결과 내부 베이스 각재도 부식되어 전반적으로 나무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다. 신내동 둥근언덕의 보수공사를 결정한 뒤 나무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한평공원은 시공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비싼 철골 구조물보다는 나무 구조물로 조성된 곳이 많다. 나무 구조물은 2~3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덧발라 준다면 부식을 막아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여, 다른 한평공원에도 오일스텐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청소

2009년에 조성된 대장동 한평공원은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곳의 성격으로 조성되었다. 대장동은 부천이라는 대도시에 속해 있지만 시골의 정취를 가진 지역이다. 시골 같은 느낌의 마을 분위기 안에는 외지 사람들에 대한 거리감을 내포하고 있었다. 도시보다는 시골 느낌이 나는 이 한평공원에서 주민들이 서로 친해지고 외지인과의 교류가 많아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으면 마음에서 한평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대장동 한평공원은 컨테이너 박스를 일부 개조하여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겸 쉼터로 이용하는 곳이었고, 이를 밝고 머물고픈 공간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던 곳이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나, 배차간격이 긴 버스를 기다릴 때면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시설에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청소를 하면서, 우리동네 한평공원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평공원이 만들어진 뒤 이용하면서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다면 1년, 2년이 지난 뒤에는 결국 가기 싫은 공간이 될 것이다. 이용하는 주민이 스스로 애정을 가지고 아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유지보수 활동을 진행하면서 한평공원 조성 당시에 협력하였던 기관과 몇몇의 일부 주민이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였다.

4. 이용측면

2005년 조성된 창동 한평공원은 창동노인복지관에서 잘 관리해주고 있는 지역이다. 버려져 있던 공간은 계시판과 지압돌, 벤치와 평상이 놓여지게 되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잘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벤치가 없어지고 그 공간에 평상이 들어가 있었다. 평상은 길가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어떤 이유로 평상이 옮겨졌는지 물었더니, 얼마 전 한평공원 옆에 편의점이 생기면서부터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사고는 사람들이 평상에서 섭취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문제들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평상의 문제들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으로 넣어버리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아놓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편의점 입점이라는 변화가 한평공원에도 영향을 끼친다. 조성 당시에 꿈꿨던 한평공원과 달라지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한평공원



2005년 조성 창동 한평공원



한울타리 한평공원의 확장된 파고라

2008년에 조성된 한울타리 한평공원은 작년까지 조성된 41개 한평공원 중에서 이용이 잘 되는 곳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평공원은 정 사각형의 파고라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파고라의 처마를 확장공사하고, 발 돌음대를 만들어 구조물이 더욱 커졌다. 또한 여름에도 쉴 수 있도록 설치한 선풍기와 냉장고, 심심함을 달래는 TV도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사방이 뚫린 집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잘 이용하는 곳이어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었다. 모니터링 당시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 지붕에 비가 새지 않게 천막을 씌워놔는데 보기 안 좋으니 지붕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시설도 노후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들어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주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공사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한울타리를 본 전문가의 의견은, 조성당시의 파고라에다가 주민들이 확장공사를 한 것이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아 지붕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예 전체를 새롭게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확장 공사가 되어 있는 이음새 부분이 지금은 튼튼하나 나중에 폭설이 내릴 때에는 하중을 잘 견뎌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한울타리 한평공원은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고, 아직까지는 파손된 곳이 많지 않아 리모델링 대상지 선정되지는 않았다. 신내동 둥근언덕 한평공원과 같이 나무가 썩어 뒤틀린 곳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기에 한울타리 한평공원의 공사는 다음기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고민스럽다. 한평공원에서의 활동을 좋아하는 주민이 하나씩 자신의 손으로 가꾸어 온 곳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 것이 아니어서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곳을 전부 다 바꾸기에는 현재 시설이 멀쩡하다는 것이다.

주민이 가져다 놓은 집기들



주민들이 한울타리 한평공원을 확장시키고 싶은 생각으로 공사할 때, 도시연대와 함께 논의했다면 어땠을까? 한울타리 한평공원을 디자인 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장했다면 위험한 구조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평공원 조성 이후, 1년, 2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주민에게만 맞길 것이 아니라 함께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평공원의 유지보수에는 망가진 시설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한평공원을 주민들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첨가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평공원 유지보수 활동

올해는 모니터링 이후 리모델링 대상지를 한곳에 하기보다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한 7곳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 조성된 동근언덕 한평공원의 경우 나무가 부식된 정도가 심하여 형태가 틀어져 있었다. 이에 나무 계단과 무대를 다시 깔게 되었다.

그 외 유지보수가 필요한 6곳은 2012년 11월 24일(토)에 도시연대 회원과 주민, 관계 기관(복지관), 신한은행 자원봉사단과 함께 식재가지치기와 오일스텐을 바르는 활동, 청소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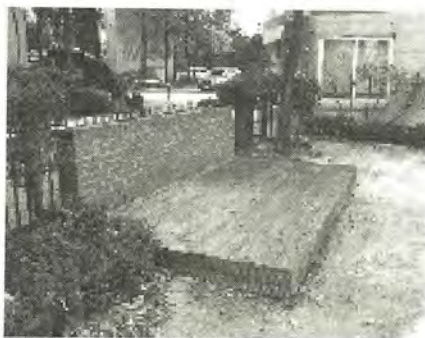
[신내동 동근언덕 한평공원 보수공사]



부식되어 뒤틀린 나무계단



나무 계단을 걷어낸 모습



보수공사 후 무대



보수 공사 후 나무계단

[한평공원 안녕? 보수공사 활동]

일시 : 2012년 11월 24일

참여자 : 도시연대 회원, 주민, 원종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신한은행 자원봉사단

보수 활동 : 나무 구조물에 오일스텐 바르기, 식재 가지치기,
간단한 수리, 청소

대상지 : 부천 밝은자리 한평공원(2006), 대장동
한평공원(2009), 소소정 한평공원(2010), 삼육어린이
한평공원(2010), 한우리 한평공원(2009), 성서 한평공원(2006)





앞으로의 한평공원은 신규 대상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한평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도시연대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쓰기에 45개의 한평공원은 너무 많다. 도시연대 회원이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한평공원에 애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한평공원에서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에서의 모니터링, 지역 관계 기관에서의 모니터링 등 누군가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야 할 시기가 왔다. 꿈을 꺾는다. [1인 1한평공원] 1명의 사람이 1곳의 한평공원을 자신의 것처럼 아끼고 신경 쓰는 제도가 도입되면 어떨까 한다. 또 꿈을 꺾는다. 공원을 만들면서 알게 된 관계기관이나 지역 주민과 꾸준히 연락을 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기를...

한평공원 만들기가 10년을 넘어 올해 11년, 내년은 12년이다. 새로 만드는 한평공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되돌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부

보태는 이야기

참여 소감

문정석

커뮤니티디자인센터 디자이너폴 팀장

매번 새삼스레 느끼는 사실이지만, 정말이지 한평공원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우, 거의 7~8년을 커뮤니티디자인센터를 통해 한평공원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단지 하나의 한평공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조차 그것을 위해 깨알같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부산하게 주고받는 영향과 움직임의 합들이 쉽게 그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한평공원,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시작부터 간단치 않습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해당 장소가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 관련된 지역공동체가 한평공원의 취지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또 그렇게 내린 결정을 가지고 우리 내부와 외부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타당성을 설명하는 일, 관에 대한 대관업무 등... 손과 발, 가슴과 머리를 쉴 새 없이 흔들고 움직여야 비로소 한평공원을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 집니다.

이 정도의 준비가 진행되었을 때, 신중하게 자원봉사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속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경력 12년 차인 도시연대와 커뮤니티디자인센터의 경험을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공유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각 대상지 별로 팀이 꾸려지면 그 안에서 또 디자인 진행과 참여프로그램 진행파트가 나뉘어져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마을을 답사하고,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좀 더 수평적인 의견개진과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공유와 수렴을 위해 커뮤니티디자인센터에서 만든 디자인 워크샵 툴을 처음 시험적용했고, 앞으로도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꾸준히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 누군가는 지역공동체 사이를 부지런히 파고들어 주민들과 얼굴을 익히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네의 소중한 공공공간 만들기를 위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갑니다. 하지만, 한평공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평공원 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모든 참가자 분들이 또한 훌륭한 네트워크이자 저희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매달 시간을 쪼개 오픈 강좌를 열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의 경험을 서로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편공원의 디자인은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구축된 참여네트워크의 잠재력과 한평공원의 참여디자이너들이 길어 올린 지역의 재발견이 화학적으로 장소에 결합된 마을 만들기의 어떤 중간 지점입니다.

이렇게 쪽 늘어놓고 보니 과정 꽤나 복잡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각 고비고비마다 적어놓은 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1년의 여정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어 움츠러들고, 자리를 못 잡아 방황하고, 괜히 시작했나 후회하고... 그러다 서로 머쓱해지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진행되다가 해소된 것, 안된 것이 뒤엎킬 즈음이 되면, 또 한 해의 한평공원이 마무리됩니다. 매 번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서로의 다짐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는 별개로 저의 아주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이런 일의 반복이, 그리고 반복됨에도 매 번의 상황에 대한 익숙지 않음이 한평공원의 디자인이고 참여 같습니다. 침대 밑에서 머리카락을 줍듯, 아쉬움의 반복들이 쌓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는 좀더 수북해지겠지요. 이렇게 또 올해 한평공원을 개인적으로 마무리합니다.

피예준
도시연대 회원/창신동 참여 디자이너

늦깎이 건축인으로서 단출한 설계경험에서 대부분 수행해 온 프로젝트는 건축주와 사용자가 동일하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에 바빠서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예를 들면 학생, 환자 등)는 설계과정에서 경미하게 다루어졌었다.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한 구석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누구를 위해 디자인은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만’ 했다.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를 하는 Architecture for Humanity, Rural Studio와 같은 단체를 동경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 혹은 경감시키는 환상적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슴 벅찰까 ‘생각만’ 하면서 지내왔었다.

한평공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를 발견하다.

지난 5월, 마을만들기에서 건축의 역할이 무엇일까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인터넷 검색에서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의 한평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돌보지 않아 방치된 땅을 동네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개선하고, 주민참여를 도모하여 물리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게 한다는 점에서 한평공원 프로젝트에 큰 매력을 느꼈다.

마침 활동 참여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6월 초에 있었던 ‘한평공원 함께하기 워크숍’에서 도시연대를 처음 만났고, 창신동 한평공원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서울성곽, 시민아파트 자리, 봉제공장, 동대문 의류시장의 배후생산지, 역사의 층위가 켜켜이 쌓여 이야기 거리가 풍부한 창신동에 프로젝트를 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흐뭇한 일이었다.

창신동 한평공원 진행 과정

설레는 마음으로 창신동 대상지를 찾아갔던 화창한 6월의 마지막 날, 마을버스를 타고 낙산공원까지 올라가서 가파른 경사길을 내려오다가 만나게 되는 공영주차장 옆 시민아파트의 흔적인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축대, 대상지를 둘러싼 녹색 울타리, 정리되지 않은 텃밭, 무대 같기도 하고, 뱃머리 같기도 한 대상지를 울타리 너머 바라보며 한평공원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장소가 될 수 있을지 팀원들과 이야기했던 것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창신동 한평공원은 한 달에 한 두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관련자료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도시연대의 장민경 팀장이 창신동 한평공원과 관련해서 마을 주민과 협의한 사항은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에서 논의되었다. 오프라인 회의 중 우리마을 공감찾기, 마을분석(SWOT분석)을 통해 창신동이 갖고 있는 것, 필요한 것 등에 대해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던 것은 창신동 한평공원 디자인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동네 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일탈행위를 방지하면서 시민아파트의 추억, 동네 박물관, 마을 기록을 담는 장소가 창신동 한평공원의 주요 개념이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마을지도 만들기과 타일 페인팅이 진행되었다. 장민경 팀장과 회원들이 창신동 한평공원 게시판에 걸릴 마을지도를 봉제공장에서 일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만들었고, 콘크리트 석축에 걸릴 타일은 은행나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예쁘게 채색했다. 그 동안에 한평공원 게시판과 전반적인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1·2차 디자인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상지에 심어져 있던 배추 수확 후인 12월 초에 시공에 들어갔고, 드디어 12월 13일에 개장식을 하였다.

주민의 회의적 시각

1차 디자인 설명회 때 직접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창신동 한평공원 디자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주민들은 디자인 보다는 공원 자체가 필요한가에 더 관심을 보였다. 괜히 이런 것 하지 말고 개발을 해야 한다, 공원을 만들면 술판이 벌어진다, 청소년 일탈장소가 된다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방치된 공간을 개선시키는 것을 당연히 주민들이 환영 할 줄 알았다. 한평공원 프로젝트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봉사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행시키지만 정작 수여자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주변의 공원에서 음주, 도박, 청소년 일탈행동 등이 일어나고 있어 오히려 공원 펜스로 둘러쳐져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외지인으로서 과연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 장소에 살면서 매일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경개선이 좋다고만 말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고, 또 다른 일탈 장소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인근에 도시연대에서 완료한 창신동 '동네 숲 가꾸기'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봤었던 주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다.

주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은 기존에 조성된 공원이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에 기반한 것이고 창신동 한평공원은 주변의 공원과는 달리 동네 알렘터로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는 장소가 되도록 고안했다.

자원활동참여로서 한평공원 프로젝트

한평공원 프로젝트는 자원활동으로 운영하기에는 호흡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자원활동은 단기적인 행사나 역할이 대체 가능할 때 적절히 기능하는 것 같다. 강도는 약하지만 5~6개월이 걸리고 불규칙한 일정을 가진 한평공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난점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집 전에 전체적인 일정을 공지하고, 프로젝트 초기에, 일이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 커리큘럼처럼 미리 회의 및 활동 날짜를 정하는 것이 회원 입장에서 개인 일정을 계획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지속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한평공원 만들기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프로젝트다. 같은 뜻을 지닌 회원들을 만나게 된 것도 즐거운 일이었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고 듣고 생각을 나누는 것도 스스로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다. 개인적인 여건이 받쳐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신동 한평공원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창신동 ‘한땀한땀 한평공원’을 개장한 지 일주일이나 되어간다. 시공이 시작되고 공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떨렸던 설레임, 완공과 동시에 느꼈던 가슴 벅찬 뿌듯함은 이제 창신동 한평공원이 주민들에게 그리고 동네에 작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었다.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 옆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예쁘다’라는 한마디에 불끈 기운을 얻고, ‘이런 쓸 데 없는 것을 뭐 하러 만드나’라는 말에 상처 받는 초짜 한평공원 디자이너로서 개장 후 공원이 어떠한 장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복잡하게 뒤섞인 감정을 피할 길이 없다. 창신동 한평공원은 조성되었으나 아직 미완성이고 주민들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배명수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안녕하세요 저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복지팀장 배명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은 저소득계층이 밀집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 곳곳에서 연출이 되곤 합니다.

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술을 드시기도, 누군가의 감시를 피해 노름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기피하고 외면해버리는 외딴섬이 되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이상, 이곳은 절대 변하는 일은 없을 거야!”

“관리사무소, 경찰서, 시청에서도 못하는 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 대부분이 수급자이고, 할 일이 없다보니 저렇게 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너무 오랫동안 만연해온 어린이공원 내 음주, 도박, 고성방가, 노상방뇨, 쓰레기투척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 대부분은 포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올해 초 도시연대의 한평 공원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하안동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술 드시고 노상방뇨의 장소로 이용되던 비상급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약속의 손도장이 찍힌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방치되고 유리창마저 깨져있던 방범초소가 지역주민의 작은 쉼터인 사랑방으로 새롭게 변했습니다.

잡초와 쓰레기로 무성하던 곳이 곳곳에 야생화가 심어진 산책로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몇 명만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외판점이 아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단지의 보여주고 싶지 않는 상처가 아닌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명소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도시연대 실무진과 회원분들, 하안13단지 주민모임인 아사모(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땀이 묻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우리의 뜻과 지혜를 모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서로 만나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희망을 꿈꾸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우리가 주인이었다는 걸....

함께 만든 사람들

■ 2012년 한평공원 만들기 모임(www.cafe.naver.com/intopark)

도시연대 회원 : 피예준, 곽수지, 정수연, 김령아, 윤지영, 조아라, 이민정, 김은정,
이주영, 황선희, 강명주, 심수림, 권은지, 윤지윤, 윤정현, 김신정

도시연대 사무처 : 장민정, 맹기돈, 조현세, 박재신, 박승배, 최성용, 김은희

도시연대 커뮤니티 디자인센터 : 문정석, 서호성, 김연금, 홍승모

어반플롯 : 서호성, 임선영

경기조경 : 주덕진

■ 협력기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시 공원녹지과

창신마을넷

창신동 은행나무 어린이집

동대문의류봉제협회

종로구 공원녹지과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

코포모 테크노센터 관리사무소

시흥시 공원관리과

신한은행 시화중앙기업금융센터지점

■ 주민

창신3동 주민일동

체부동 주민일동

하안1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일동

시화공단 근로자 일동

■ 고마운 사람들

신한은행 자원봉사단

하안동 아름다운 우리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 후원 및 지원

후원



신한은행

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 보고서는 신한은행의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2년 한평공원 만들기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아파트 902호

전화 | 02-735-6046

팩스 | 02-735-6045

홈페이지 | www.dosi.or.kr

발행인 | 김기호

편집인 | 김은희

북디자인 | 마화영